

전북도, “친환경직불사업 신청하세요”

자체 생산 은어 종자 18만 마리 방류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접수

전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화확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

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는 ha당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농업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확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은 논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회), 유기농업 인증농가는 5년(회)을 지원한다. 유기농업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시·군과 합

계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발을 내딛는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지원한다.

무농약과 유기농업에 지원하며, 단가와 지원면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5년(회), 유기농업 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으로 무기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4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인증 여부 등 이행 점검 후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3개 시·군에 은어 자원 회복 위해

토산 어종 자원량 증대를 통한 어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인공 생산된 건강한 ‘은어 종자’를 도내 하천에 방류한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자원량이 감소한 은어 자원 회복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자체 생산한 건강한 은어 종자를 방류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시·군(정읍 추령천, 남원 요천, 임실 삼진강)에 각 6만 마리씩 총 18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은어 종자는 2020년 11월 인공 수정을 통해 부화한 것으로,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약 4개월간 키운 6cm 이상의 유량종자이다.

그간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8년 처음 은어종자를 방류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약 188만 마리를 도내 주요 하천 및 호소에 지속적으로 방류해 자원조성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동의보감에 은어는 “폐를 보호하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 위를 건강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조혈작용을 통해 빈혈을 예방하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고, 칼슘 함량이 멸치보다 3배 높아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좋으며, 비타민 E는 어류 중 손에 꼽는 수준으로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훌륭한 어류로 알려져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360개소 신학기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전북도는 신학기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3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전북도와 교육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9개반 3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36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 수거·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도 병행해 지도한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에 위생적 급식환경조성,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등 식중독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학기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선포식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열린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선포식에 참석해 핸드 프린팅을 마친 뒤 박수를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 총리,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뒀다.

총 3개 분야, 20개 내외의 평생교육 기관·단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특화 사업’은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미래사회 역량 특화 사업’은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교육, 직업준비, 직무역량 교육으로 사회 적응력 및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북형 자원 특화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인문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4월 중에 지원기관 선정 심사와 선정기관 교육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전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동체와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가 행복한 체험관 조성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어린이 관련 기관단체 은누리안과병원·은누리안행과 업무협약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도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2일 어린이 관련 기관단체와 은누리안과병원, 은누리안행과 행복한 체험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관련 기관단체인 전북도 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극 홍보하고,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관 이용 중 안과 관련 상담 및 응급 질환 발생 시 즉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은누리안과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사)은누리안행과 안구·장기기증 홍보·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해 안구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빛과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재개관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뛰어놀며 마음껏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체험관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토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에 고창 가평교 선정

전북도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고창군 가평교가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1.4~2.10) 접수된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해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광역·기초 지자체 11곳 중 전북도는 고창군 가평교가 노후기반시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를 조기(3월)에 신청해 안전등급 D등급인 가평교의 신속한 보수·보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